

□ 인플루엔자 및 유행성 감염병 예방 □ (인플루엔자, 지카바이러스, 메르스, 결핵 등)

● 인플루엔자 예방

최근 계절 **독감(인플루엔자)**이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. 주요 증상으로는 **38℃이상의 고열과 함께 기침, 인후통, 몸살 등을 동반하며, 환자의 기침이나 콧물 등의 분비물(손잡이, 스마트폰 등이 매개)을 통해 쉽게 감염이** 일어나므로, 가정에서도 자녀와 가족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예방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.

<인플루엔자 예방 행동수칙>

- 가. **손 씻기**를 생활화하며, 씻지 않은 손으로는 절대 얼굴을 만지지 않습니다.
- 나.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손수건이나 휴지, 옷깃 등으로 입을 가리고 하십시오.
- 다. 발열과 호흡기 증상(기침, 목 아픔, 콧물 등)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합니다.
- 라.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에는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피합니다.
- 마.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습니다.
- 바. 고위험군 대상자는 예방접종을 합니다. (접종 2주 후 항체형성)

●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예방

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소두증신생아 출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임신부의 중남미 등 발생국가 여행엔 기를 권고하고,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였습니다.

<예방수칙>

- 해외여행 전: **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에서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현황 확인**
- 해외여행 중: 현재까지 치료법 및 예방백신이 없어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
 -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고 냉방이 잘 되는 숙소에서 생활
 - 야외 외출 시에는 가능한 밝은 색의 긴팔 상의와 긴 바지 의류 착용
 -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기 기피제 사용
- 해외여행 후 행동요령
 - 귀국한 뒤 2주 이내 **의심증상(발열, 발진, 관절통, 근육통, 결막염, 두통 등)이 나타나면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고 진료**를 받을 것
 - 감염 의심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거주 지역 보건소에 신고
 - 증상이 발생하지 않아도 1달간 헌혈금지

● 메르스 예방

국외 메르스 환자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동 지역 여행자가 있는 경우 아래 예방 수칙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□ 중동지역 여행자 메르스 예방수칙

구 분		행 동 수 칙
여행 전	발생국가 및 주의사항 확인	· 질병관리본부(www.cdc.go.kr), 해외질병정보센터(travelinfo.cdc.go.kr) 참고
여행 중	감염예방 수칙 준수	·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· 여행 중 동물과의 접촉 및 낙타 부산물(낙타고기, 낙타유) 섭취 삼가 · 진료 목적 이외 병원 방문 및 사람이 분비는 장소 방문 자제 -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·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삼가 · 발열, 기침, 콧물, 호흡곤란 등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후 의료기관 방문
여행 후	의심 증상 발생 시	· 귀국 후 2주 이내 발열, 기침, 콧물, 호흡곤란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우선 1339로 신고

● 결핵 예방하기

결핵이란 폐가 결핵균에 의해 감염되며 결핵균은 비말핵 상태로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사람들이 마심으로서 감염되며, 약 4-6주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게 됩니다. 이것을 **일차성 결핵**이라고 하며, 과거에 감염되었던 결핵균이 세포내에서 수면상태에 있다가 면역기능이 저하되면 다시 활동을 시작하게 되어 병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것을 **이차성 결핵**이라고 하고 **결핵은 만성병으로 제3군 감염병**입니다.

<예방 및 치료>

- 항결핵제를 복용하는 내과정 치료가 기본으로 **최소 6개월간 약을 복용**해야 하는데 **완치가** 되었다는 **판정을 받을 때까지 약을** 먹어야 합니다. 이렇게 해야 **나중에 재발** 하지 않게 됩니다.
-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손씻기를 생활화하며,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손수건이나 휴지, 옷깃 등으로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착용합니다.

□ 결핵환자 발생시 조치사항

- 가. **균이 나오는 양성인 경우 약 14일간 등교중지** 해야 하며, **균이 나오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아야 등교 가능**합니다. (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시 등교중지 기간 출석으로 인정)
- 나. 밀접 접촉자인 가족검진도 중요하니 가족들도 꼭 검진을 받도록 합니다.
- 다. **결핵이 의심되는 증상(2주이상 심한 기침·가래가 있는 경우)이 있는 경우 보건소나 병원 진료**하도록 해야 하며, **결핵 환자로 판명이 되면 보건실로 알립니다.**
- 라. 학생 중에 결핵환자 발생 시 관할 보건소와 대한결핵협회의 업무 협조 요청 시 협조합니다. (접촉자 조사 및 검사 등)

※ 감염병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 ※

- 가. 감염병 발병 의심 학생은 등교 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확진 여부 판정 시까지 등교를 중지해야하며, 완치될 때까지 가정에서 격리치료를 받습니다.(병원 외 외출 금지)
- 나. 완치하여 등교 시 확인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(병명과 격리치료 기간 명시)
- 다. 해외 출국 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요 국가 감염병 정보와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주의사항을 잘 지킵니다.
- 라. 예방접종을 빠짐없이 받습니다.

2016년 3월 30일

호 남 제 일 고 등 학 교 장